



지유 스님



진제 스님



혜국 스님



고우 스님



인각 스님



현산 스님



지환 스님



무여 스님



원연 스님



정광 스님

## 禪, 문 없는 문... 열쇠는 어디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생활 속 선수행 바르게 배울 기회”

3월 5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참선 체험도  
범어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전체 참가자에 수료증 발급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주최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를 봉행한다.  
'문 없는 문을 열다'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설선대법회는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선사 10인이 초청돼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된다.  
3월 5일 입제식에서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증명 범어를 내리고,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치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에서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이 '설선대법회의 의의'에 대한 입제범어를 하고,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화엄범어 및 무차선(無遮禪) 법회를 맡는다.  
조계종 정통 선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 수행의 고갱이를 열어 보일 법주는 지유 진제 스님을 비롯

해국(석종사 금봉선원장) 고우(각화사 선택) 인각(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현산(화엄사 선등선원장)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무여(축사사 선원장) 원연(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정광(범암사 태고선원장) 스님 등 10인. 선방에서만 수십 안거를 성만하고 한국불교 대표급 선원을 이끌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선승들이 법연을 펼친다.  
매주 법문의 주제는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 '선과 삶' '지혜와 자비를 조화롭게 묶는 선수행' '선수행의 바른 길' '생사문제와 선수행'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선수행의 단계' 등 실생활과 간화선을 접목해 명쾌하게 간화선 수행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회는 최근 '불'을 타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법을 일반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자리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법회는 집의법사 및 재가 집의자가 법회별로 두 명의 지정돼 청중을 대신해 법주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법문 후에는 즉문즉답(卽問卽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회향법회가 열리는 5월 7일에는 지위고하와 승속을 가리지 않고 법을 묻는 무차선법회도 열린다.  
질의법사에는 수십년 선방에서 공부한 선원장급 구참수와 9명이, 역시 수십년의 수행이력을 자랑하는 재가자 10명 등 모두 19명이 대중을 대신해 질문자로 나선다.  
법회후에는 참가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화선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참선실수의 장도 열린다. 매 법회가 끝난 뒤 희망자는 스님들의 지도 아래 참선실수(오후 7시~11시), 철야정진(오후 11시 이후)을 할 수 있다. 전체 법회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참선에 참가한 사람은 안거증을 받는다. 참가문의 (051)508-3636  
천미희·김철우 기자

날짜	주제	법주	질의법사
3월 5일	입제식, 설선대법회의 의의	지유 스님	· 구주 스님(수좌) · 관민연(동아대학교 교수)
3월 12일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혜국 스님	· 설우 스님(법민정사 선원장) · 김건용(조계종 국제교과사)
3월 19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 수행	고우 스님	· 화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강동균(동아대학교 교수)
3월 26일	선과 삶	인각 스님	· 효암 스님(수좌) · 지호경(부산불교실업협회 감사,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
4월 2일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묶는 선수행	현산 스님	· 종대 스님(전 태인사 선원장) · 박근호(전 부산영남교정인물자회장)
4월 9일	선수행의 바른 길	지환 스님	· 강설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사무처장) · 최익두(부산시법무회장)
4월 16일	생사문제와 선수행	무여 스님	· 영일 스님(수좌) · 이대원성(연꽃모임 명예회장) · 류상영(대불정 부산지구회장)
4월 23일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원연 스님	· 홍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비구니 선감) · 김윤환(부산불교실업협회장, 영광도서 사장)
4월 30일	선수행의 단계	정광 스님	· 지현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 ·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5월 7일	회향법회 및 무차선법회	진제 스님	

## “해제는 스스로 의지해 걸어가는 것” 23일 갑신년 동안거 해제, 법전 스님 범어 발표

갑신년 동안거 해제일(2월 23일)을 맞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철전선원장 지허 스님이 해제 법문을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해제 법문에서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은 삼계(三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며 “공부하는 사람은 삼계에서 애착하는 일들을 몽땅 털어버려야 하니 털끝만큼이라도 애착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아직 결제가 될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전 스님은 또 “해제대중들의 한 행길은 모두 형상 없는 도량이다. 형상 없는 도량에서 다니는 것 없이 다닐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법안 선사의 뜻이요, 이 산승의 해제법문에 대접하는 일”이라고 법문했다.  
한편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집계한 <갑신년 동안거 선사방람록>에 의하면 전국 91개 선원(비구 선원 60곳, 비구니 선원 31곳)에서 총 2115명(외교대중 285명 포함)의 정진대중이 참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조계종 ‘얼굴’ 이렇습니다



조계종이 종명(宗名)을 보호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특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상표·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9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상표·서비스표, 2004년 10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특하게 등록 완료한 종단 문장(敍章)은 ‘삼보륜(三寶輪)’이다. 삼보륜은 삼보의 신앙과 선교양종의 조계종 이념, 사부대중의 화합, 신앙과 표표를 통한 불국토구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남동우 기자



##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H CULTURE 늘 푸른 청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5대 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 불교전문교육사업 : 原典專門學林 ‘三學園’ · 학술연구사업 · 문화교회사업 : 정기 ‘수행문화포럼’ · 전문출판사업 : 4대사업 성과물 및 기획출간사업  
“사부대중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로 뜻깊은 열네해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연구원가족 恒心으로 精進하며 이 모든 功德을 大衆에게 廻向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람 예약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람』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 회원들에게는 위의 본원 출간 수행논서들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증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 765-9602~3 FAX. 765-5673